

5주차

# 조선 왕의 하루 일과

소진형

## 학습목차

### 학습목표

### 학습내용

#### 01. 조선 왕의 권한과 그 범위

- 도입
- 중화 질서 안에서 조선 왕의 규정과 권한
- 외부적 평화와 국내 정치의 안정의 관계

#### 02. 유교적 통치자로서 왕의 권한

- 국내 정치에 있어서 왕의 권력과 그 범위
- 권위의 표현으로서 제사, 묘호,  
그리고 그 의미

#### 03. 왕의 일과(1): 문안

- 왕의 하루
- 문안

#### 04. 왕의 일과(2): 경연

- 경연의 의미와 형식
- 실제 경연의 사례

#### 05. 왕의 일과(3): 조회와 인사

- 왕의 공무처리
- 왕의 행정처리와 명령의 전달, 관료의 임용

## 5차시

# 왕의 일과(3): 조회와 인사

## 학습목차

### 학습목표

- 조회와 인사를 통해 조선왕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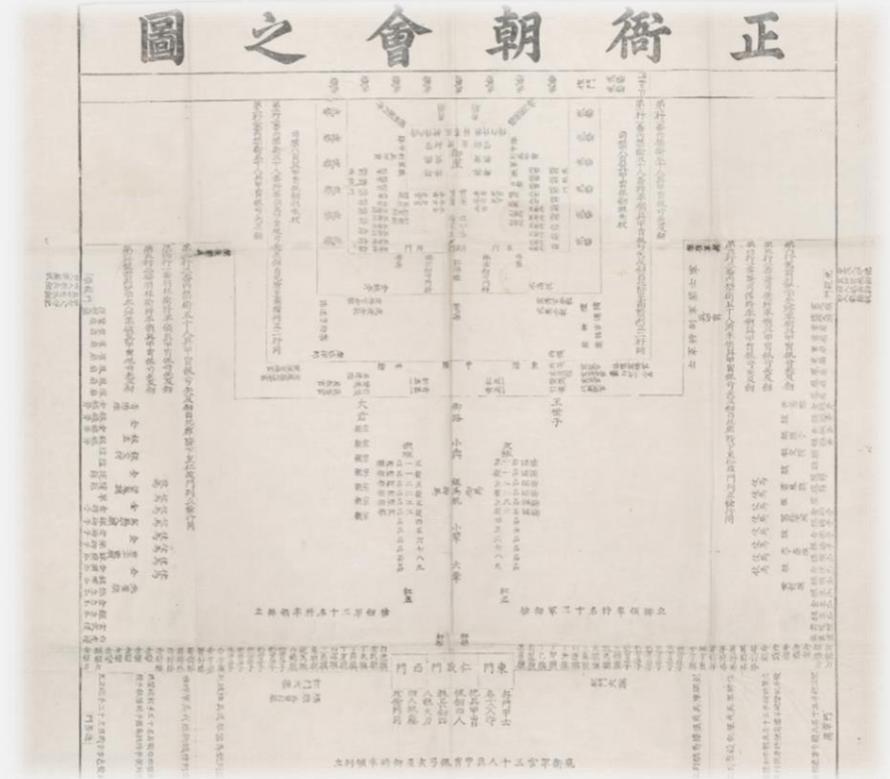
### 학습내용

- 왕의 공무처리
- 왕의 행정처리와 명령의 전달, 관료의 임용

# 왕의 공무처리

# 행정가로서의 왕

- 조강이 끝나면 조회가 시작됨
- 조회: 왕이 실무 관료들로부터 국정을 듣는 자리
  - 조회는 원래 제후가 천자를 뵈는다는 뜻에서 나왔지만, 역사적으로 신하가 아침에 왕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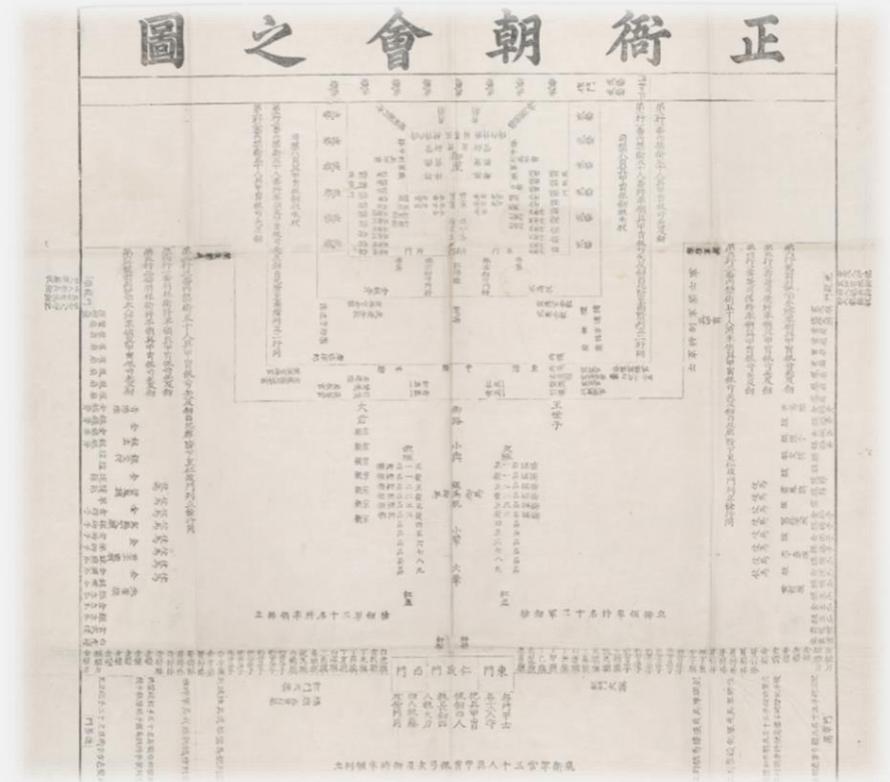


정아조회도

## 조회 모습

# 정아조회지도(正衙朝會之圖)

- 정아: 왕이 나와 조회를 보던 궁전. 경복궁의 근정전, 창덕궁의 인정전.
  - 왕이 궁전 안의 어좌에 앉으면 왕을 보호하는 수호군이 어좌를 겹겹이 에워쌌
  - 그 뒤 활과 화살을 넣은 통을 맨 내시와 왕을 모시는 내시가 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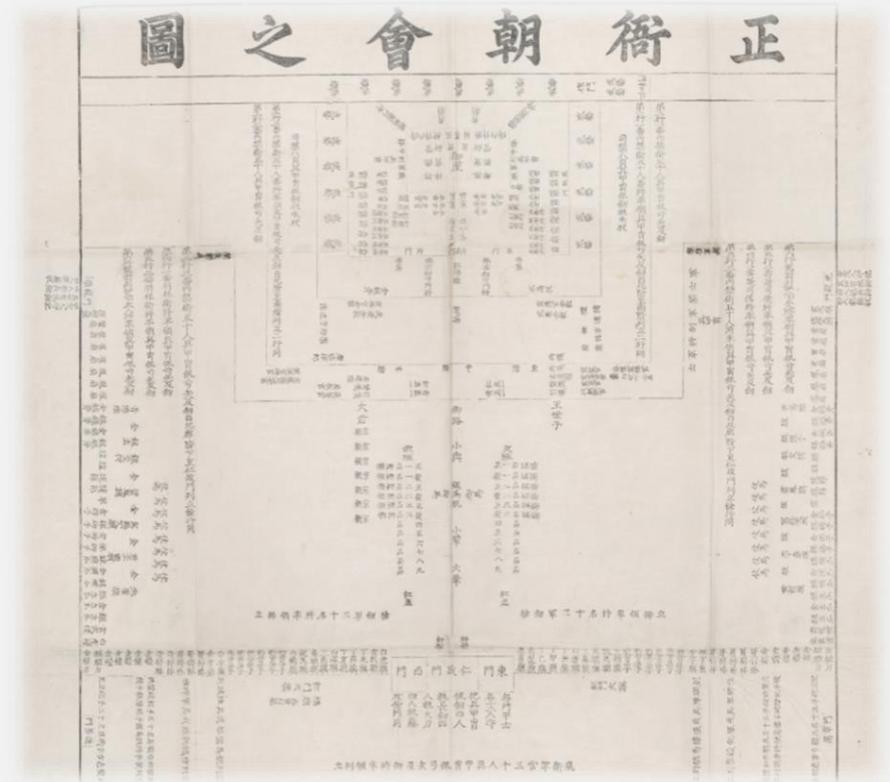


정아조회지도

## 조회 모습

# 정아조회지도(正衙朝會之圖)

- 어좌 앞에는 왕의 비서인 승지 3명과 매일의 일과를 기록하는 사관 2명이 좌우에 엮드려 있음
- 어좌 좌우에는 갑주를 받들고 있는 무관들 40명이 두 겹으로 줄지어 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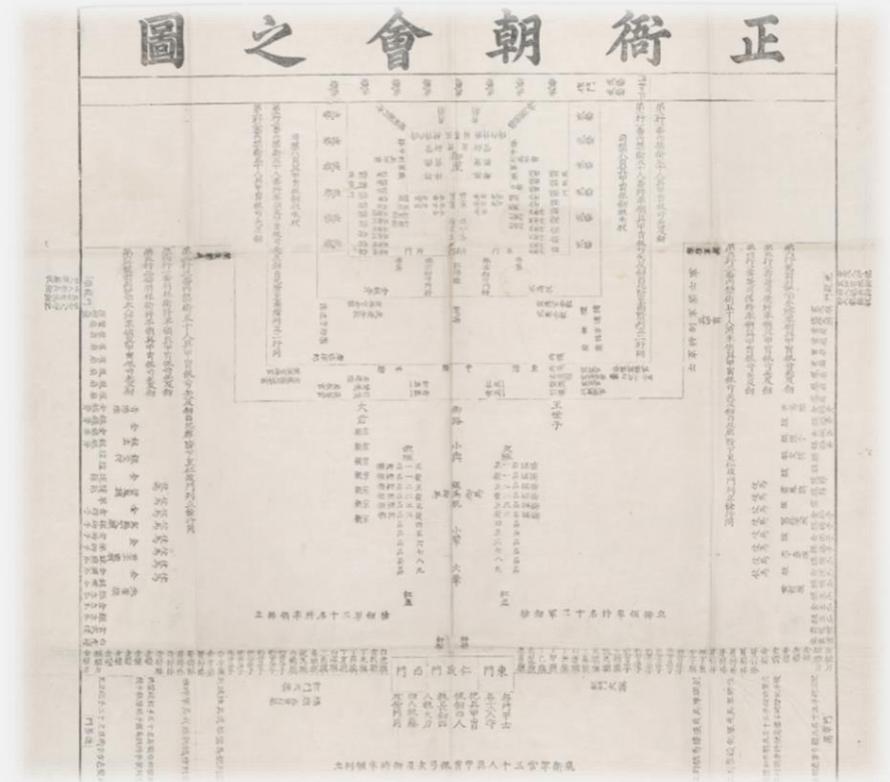


정아조회지도

## 조회 모습

# 정아조회지도(正衙朝會之圖)

- 정아 밖에는 정면에는 의장용 칼을 든 수문장이 있고  
동쪽과 서쪽에는 무예별감들이 서고, 양산과 부채를  
든 내시들이 섬
- 궁전 밖에 조회하러 온 왕세자, 종친, 문무백관이 궁  
전을 정면으로 보고 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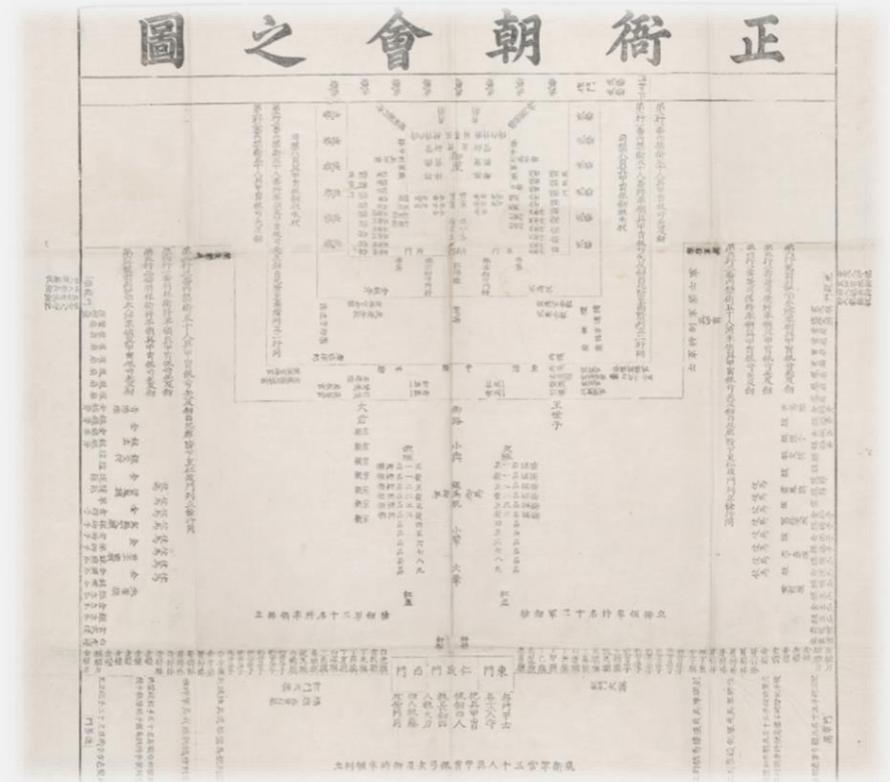


정아조회도

## 조회 모습

# 정아조회지도(正衙朝會之圖)

- 조회의 진행을 맡은 관료가 “국궁 사배 흥 평신”이라고 외치면 이들은 국왕에게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 뒤 조회가 시작됨



정아조회도

# 조회 의 종류

---

- 정월 초하루와 동지에는 조하, 즉 임금에게 축하하는 예를 함
  - 매달 초하루와 6, 11, 16, 21, 26일을 아일(衙日)이라고 함
  - 아일은 조회를 하고 정사를 보는 날이라는 의미
  - 이때 하는 조회를 ‘아일조회’라고 부름

# 조회외 종류

---

- 아침에 하는 조회: 조참(매월 5일, 11일, 21일, 25일)
- 매일 하는 조회: 상참
  - 조하와 조참은 종친과 문무백관이 모두 참석
  - 상참은 각 부처의 주요 관료들만 참석

# 조회 의 종류

---

- 윤대

- 고위관료만이 아니라 이조, 호조, 예조의 6품 이상, 형조, 병조, 공조의 4품 이상의 실무자들이 차례로 참석

# 왕의 행정처리와 명령의 전달, 관료의 임용

# 왕의 행정 업무

---

- 왕은 국정의 각종 현안과 정책, 보고 사항을 듣고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 관료들의 보고서와 일반 사람들의 상소문을 읽고서 이에 대해 답함
- 왕의 답변을 전교, 비망기, 비답이라고 부름
- 왕의 말이나 명령을 뜻하는 용어
  - 교, 비망기, 교지, 비, 유, 전지, 운발

# 왕의 행정 업무

- 비망기: 임금의 명령을 승지나 당사자에게 전하던 문서
- 전교: 임금이 내리는 명령
- 교지: 임금이 관직 등을 내려준다는 명령
- 비 또는 비답: 상소 등에 대한 왕의 답변
- 유: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료에게 주는 군사관계의 명령
- 전지: 관청이나 관리에게 전하는 임금의 뜻



박단유소진농서책자  
국회계비답

# 왕의 행정 업무

---

## ■ 윤발, 윤음

- 왕이 특정인을 훈계하거나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적은 글
- 윤발은 원래는 황제의 칙서인데,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

영조대부터는 왕의 말을 나타내는 공식 용어로 사용함

# 왕의 비서 기관 승정원

---

- 승지
  - 왕의 명령을 전달
  - 4경(새벽 1-3시)에 출근해서 밤 늦게 귀가
  - 새벽에 왕이 일어나면 국정 현안과 정책 보고
  - 상소문 정리해서 왕에게 바침

# 왕의 비서 기관

## 승정원

---

- 봉환
  - 승지의 권한 중에는 왕이 내린 전지를 다시 반환하는 권한. 왕이 관청이나 관리에게 전하는 전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내지 않고 왕에게 반환하는 것

# 왕실과 국가 재정

---

# 왕의 관료 임용

---

- 도목정사: 조선시대 인사행정. 이조와 병조에서 주로 함
- 인사는 매월 2,3차례, 많으면 한달에 16번 있었음
- 도목정사는 일년에 2차례씩 이조와 병조에서 하는 인사행정
  - 인사권이 왕에게 있기는 하지만 왕이 모든 관료들이나 후보자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료들과 논의해서 인사를 결정

# 왕의 관료 임용

---

- 한 관직의 후보자는 세 사람을 올림.
- ‘삼망’ : 세 사람을 올리는 것을 말함
- ‘가망’ :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, 교체 뒤 다시 선택함
- 구전정사: 입으로 전했다는 의미로 왕의 특별지시로 이루어진 인사행정

# ‘이조전랑’

---

- 품계 자체는 높으나 홍문관 출신의 명망있고 젊은 문신 중에서 선임됨
- **이조전랑의 특권**
  - 하급 관료의 천거, 홍문관 등 언론 기관의 관료 선발권, 재야의 인재 추천권, 후임 전랑의 지명권
  - 전랑직은 중죄가 아니면 탄핵도 받지 않고 승진이 보장됨

# ‘이조전랑’에게 특권이 부여된 이유

---

- 고위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함
- 그러나 많은 권력자들과 당파들이 자기 사람을 이조전랑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함
  - 자기 당파의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결과로 이어짐
  - 조선 후기 왕들은 이조전랑권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

# 왜 조선의 왕은 자신의 권한인 인사권을 충분히 쓸 수 없었나?

---

- 왕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존재했기 때문
- 제도의 설계자들은 왕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
- → 이조전랑제와 같은 제도들을 만듦

# 왜 조선의 왕은 자신의 권한인 인사권을 충분히 쓸 수 없었나?

---

- 그러나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함
    - 좋은 제도가 반드시 좋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
    - 정치만으로 통치를 할 수도 없음
- 제도 및 행정과 정치가 균형있게 공존할 때 좋은 통치가 가능

# 마무리

---

- 조선의 왕은 입법, 사법, 행정의 권력을 가졌지만  
실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

## SOURCES

[출처01]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, 奎10336.

[출처02]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

[http://yoksa.aks.ac.kr/jsp/aa/ImageView.jsp?aa10up=kh2\\_je\\_a\\_vsu\\_80187\\_000&aa10no=kh2\\_je\\_a\\_vsu\\_80187\\_001](http://yoksa.aks.ac.kr/jsp/aa/ImageView.jsp?aa10up=kh2_je_a_vsu_80187_000&aa10no=kh2_je_a_vsu_80187_001)

- ❖ 『조선왕조실록』
- ❖ 『승정원일기』
- ❖ 육수화. 2017. 『조선의 왕과 왕세자: 왕관을 쓴 자의 무게』 . 서울: 민속원.
- ❖ 육수화. 2008. 『조선시대 왕실교육』 . 서울: 민속원.
- ❖ 심재우, 한형주, 임민혁, 신명호, 박용만, 이순구. 2011. 『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』 파주: 돌베개.



YONSEI  
UNIVERSITY  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  
이봉규·정다영

교안  
정다영

영상  
김록현